Ⅱ 최근 금융 및 보험 환경 변화

1. 사회 경제적 측면

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보유자산 축소 등으로 정책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각국 통화정책 및 정치·경제 상황 등에 따라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리의 장기 하락을 멈추고 V자형 상승 반전된 상황이다.[4)]

금리인상으로 채권중심의 자산운용을 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감소가 예상되어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반면, 금리가 인상될 경우 저금리로 부진했던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아지고 2023년 신국제회계기준 시행으로 부채시가평가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으나 과거에 판매한 확정금리형 고금리상품으로 인해 금리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 부담이 지속될 것이다.

나.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증대

2014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5)]했으며 그간 저금리 지속으로 상환부담이 경감되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 자영업자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계층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규제에 따른 기업 역동성 저하,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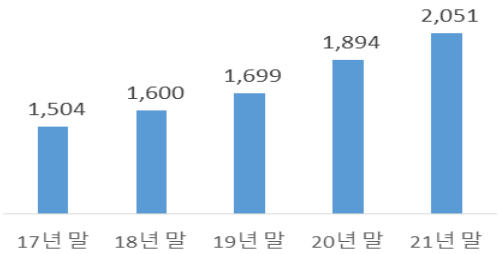
4) 미국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배경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확산되며 상당폭 하락 하였다가 금년 2월에 1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 후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상당폭 반등함(한국은행 2023. 3)

5) 가계대출증가율: ('15년) 8.9% → ('16년) 11.9% → ('17년) 7.3% → ('18년) 6.1% → ('19년) 4.9% → ('20년) 8.3% → ('21년) 7.5%(한국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 참조함)

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조정 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릴 경우 경제불확실성 증가가 투자제한, 소비위축 등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소비위축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보험 가입률이 감소하고 기존 계약의 중도 해지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Ⅱ-1〉 연도별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

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한국은 평균수명 증가 및 출산율 하락에 따라 고령화사회(2000년)에서 초고령사회(2026년)로 26년 만에 진입이 예상[6]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경기침체와 소득감소에 따른 부양능력 상실을 초래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보험 가입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보험산업의 장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등 공적보험의 한계[7][8]로 인해 노인빈곤 및 건강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민영보험의 역할 및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9]

6) 프랑스 154년, 미국 89년, 독일 76년, 일본 36년임(윤성훈 외(2011)를 참조함)

7) 시사IN(2023. 3. 9), "소득대체율이냐 재정안정이냐, 연금 개혁 해법은?"; 국회연구조정협의회(2023. 3)

8) 2021년 건강보험보장률은 64.5%임(e-나라지표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 1. 27)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2093) 시산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함(e-브리핑 시스템(https://ebrief.korea.kr))

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진행

제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된 IT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IoT·나노기술 등의 혁신은 현재 금융산업에 기회이자 위협을 가져오고 있는 핵심적 요소이며 보험과 IT 기술이 결합된 인슈어테크는 현재까지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조만간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상품, 영업방식 등이 출현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보험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핀테크 업체들이 기술기반 디지털 마케팅을 기반으로 비대면 영업 조직 등을 구축하면서 대면 영업 중심이던 기존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 대리점(GA)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는 등 상호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 보험산업 측면

가. 국제보험회계기준 및 신지급여력기준 도입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자본규제(K-ICS)로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준 및 체계 구축, 상품 개발, 판매채널, 손익관리, 의사결정 과정 및 성과평가 방식 등 경영전략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수익과 비용 인식 및 사업비 이연 방법 변경 등으로 기존 신계약 위주의 경영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더욱이 보험부채 평가기준 변경(원가→공정가치)으로 보험부채 적립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없을 경우 생존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나. 국내보험시장 포화로 인한 성장성 둔화

2019년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2%에 이르는 등 국내보험시장은 이미 포화되어 있고 생명·손해보험 연평균 증가율은 2011~2015년 중 7.3%에서 2016~2020년 중 2.0%로 급감하는 등 신규 보험 가입 수요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10)]

10)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정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비율 상승 등으로 시장의 외형적 성장이 둔화되고 보험회사 및 모집조직 간 실적 위주의 마케팅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표 Ⅱ-1〉 수입보험료 연 성장률

(단위: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2.0	8.3	23.2	-3.7	3.0	5.6	3.0	-2.0	-0.7	5.4	4.3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다.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에 따라 소비자 권리의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소비자보호단체 및 언론 등의 보험에 대한 관심 및 감시가 증가하는 한편, 소비자의 교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하,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강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6대 판매행위 규제,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및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는 등 소비자 보호주의가 계속 강조될 것이다.

라.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그동안 보험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보험 가격의 사전규제에 대해 정책성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가 폐지되었으며 보험료(위험률) 할증 한도 폐지 등 가격규제도 완화되었다.

인슈어테크 등의 영향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가 챗봇을 통한 보험 추천,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연계 서비스, 운전습관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연동 등의 움직임이 있으나 이와 연관된 전용 보험상품 개발은 부진한 상황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판매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상품개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과거 양적 경쟁 외 질적 경쟁도 가속화되고 인슈어테크 기술 발전에 의해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마. 대형 판매채널 중심으로 상품개발 및 판매의 분리추세

GA(General Agency)로 불리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설계사 영업 확대 등 대형화로 보험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채널로 자리잡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및 GA 등 전문판매조직의 비중이 늘고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며 상품 개발과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500인 이상 대형 GA의 설계사 수는 지속 증가하나 100인 이하 소형 GA의 설계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보험회사 전속설계사가 대형 GA로 이동하거나 GA 내에서 소형회사에서 대형회사로 활발히 이동하는 등 GA의 양적팽창, 대형화 속에 일부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 조직을 자회사(GA)로 전환[11]하는 영업채널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표 Ⅱ-2〉 보험설계사의 이동 현황

(단위: 명)

설계사			
구분	보험회사 전속	GA소속	대형GA소속 (500명 이상)
’15년 12월 말	20.3만	20.4만	11.6만
’21년 12월 말	17.0만	24.7만	17.9만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5. 31),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8. 25),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분석 및 시사점”

11) 한화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라이나생명·흥국생명 등이 전속설계사 조직을 GA로 분사하였음